

유란시아서

<< [제 183 편](#) | [부분](#) | [내용](#) | [제 185 편](#) >>

제 184 편

산헤드린 법정 앞에서

184:0.1 (1978.1) **안나스의** 대리인들은 **예수**가 붙잡힌 뒤에 **안나스**의 저택으로 그를 즉시 데려오라고 **로마** 군인들의 지휘관에게 몰래 전에 지시하였다. 전직 대사제는 **유대인** 교회 권위자들의 우두머리로서 그의 위신(威信)을 유지하기를 바랐다. 또한 **예수**를 그의 집에 몇 시간 동안 구류하는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, 곧 **산헤드린** 법정을 합법적으로 소집하는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다. 성전에서 아침 희생물을 바치는 시간 이전에 **산헤드린** 법정을 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났는데, 이 희생물은 새벽 3시쯤에 바쳤다.

184:0.2 (1978.2) **산헤드린** 회원들의 법정이 그의 사위 **가야바**의 저택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**안나스**는 알았다. **산헤드린**의 회원 약 30명은 **예수**가 그들 앞에 혹시 끌려왔을 때 **예수**를 재판할 준비가 되도록, 자정까지 대사제의 집에서 모여 있었다. 재판하는 법정을 구성하는 데 23명만 요구되었으니까, **예수**와 그의 가르침을 굳세게, 터놓고 반대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.

184:0.3 (1978.3) **올리브** 산에 있는 **안나스**의 저택에서 **예수**는 세 시간쯤 보냈고, 여기는 사람들이 그를 체포한 **겻세마네** 동산에서 그리 멀지

않았다. **요한**은 **안나스**의 저택에서 자유롭고 안전했는데, **로마인** 지휘관이 한 말뿐 아니라, 또한 그와 형 **야고보**가 나이 든 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고, 전직(前職) 대사제가 어머니 **살로메**의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, 그들은 그 저택에 여러 번 손님이었다.

1. 안나스의 심문

184:1.1 (1978.4) **안나스**는 성전의 소득으로 부유하게 되었고, 그의 사위가 대사제 대행이고, 자신이 **로마** 당국과 관련을 가졌기 때문에, 정말로 온 **유대인**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다. 그는 태도가 부드럽고 교활한 모사(謀士)요 계교를 꾸미는 사람이었다. 그는 **예수**를 처치하는 문제를 지휘하고 싶었다. 통명스럽고 공격적인 사위에게 그렇게 중요한 과제를 전적으로 맡기기가 두려웠다. **안나스**는 주의 재판이 꼭 **사두개인**들의 손에 맡겨지도록 처리하기를 바랐다. **예수**의 운동을 지지한 **산헤드린** 회원의 거의 전부가 **바리새인**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, 그는 **바리새인**들이 더러 동정할 가능성을 두려워했다.

184:1.2 (1978.5) 주가 그의 집을 방문하고, 그가 차갑게 경계하면서 주를 맞이하는 것을 보고 나서 즉시 떠난 뒤로, **안나스**는 몇 년 동안 **예수**를 만나보지 못했다. **안나스**는 일찍부터 이렇게 안면이 있었던 것을 이용하고, 그렇게 하여 **예수**가 그의 주장을 버리고 **팔레스타인**을 떠나라고 설득해 볼 생각이 있었다. 그는 좋은 사람을 죽이는 데 끼어드는 것을 꺼려했고, **예수**가 죽음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나라를 떠나기를 택할지 모른다고 추측했다. 그러나 튼튼하고 각오가 굳은 **갈릴리** 사람 앞에 섰을 때, **안나스**는 그런 제안이 쓸데없으리라는 것을

당장 깨달았다. **예수**는 **안나스**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욱 위엄 있고 매우 차분했다.

184:1.3 (1979.1) **예수**가 어렸을 때, **안나스**는 그에게 큰 관심을 가졌지만, 환전상 및 다른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몰아내느라고 **예수**가 최근에 행한 것 때문에 이제 그의 소득이 위협을 받았다. 이 행위는 **예수**의 가르침보다 전직 대사제의 반감(反感)을 훨씬 더 불러일으켰다.

184:1.4 (1979.2) **안나스**는 널찍한 접견실에 들어가서 큰 의자에 앉았다. 그리고 **예수**를 그 앞으로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. 말없이 주를 찬찬히 살펴보느라고 몇 순간이 지난 뒤에, 말했다: “네가 우리나라의 평안과 질서를 깨뜨리는즉슨, 너의 가르침에 대하여 무슨 조처(措處)가 있어야 함을 네가 깨달으렸다.” **안나스**가 **예수**를 캐묻는 듯이 바라보자, 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. 다시 **안나스**가 말했다. “선동자인 열심당원 **시몬** 외에, 네 제자들의 이름이 무엇인고?” 다시 **예수**는 그를 내려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.

184:1.5 (1979.3) **예수**가 물음에 대답하지 않는 것에 **안나스**는 어지간히 속이 뒤집혔고, 너무 뒤집혀서 **예수**에게 말했다: “내가 너에게 호의를 가지거나 말거나, 너는 아랑곳하지 않는고? 다가오는 너의 재판 문제를 결정하는 데, 내가 가진 권력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느냐?” 이 말을 듣자 **예수**는 말했다: “**안나스**여, 내 **아버지**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나에 대하여 아무 권력도 가질 수 없음을 네가 아는도다. 더러는 무지한 까닭에 **사람의 아들**을 죽이려 하고, 저희는 분별이 그보다 없거니와, 친구여 너는 네가 무엇을 하는지 아느니라. 그런즉 너는 어찌 **하나님**의 빛을 물리칠 수 있느냐?”

184:1.6 (1979.4) **예수**가 친절하 태도로 하신 말씀은 **안나스**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. 그러나 이전에 그는 머리 속에서 **예수**가

팔레스타인을 떠나든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. 그래서 그는 용기를 불러일으켜 물었다: “도대체 네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쓰느냐?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주장하느냐?” **예수**는 말했다: “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. 나는 회당에서, 또 여러 번 성전에서 가르쳤고, 거기서 모든 **유대인**과 많은 이방인이 내 말을 들었느니라. 나는 몰래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거늘, 그러면 어찌하여 내 가르침에 대하여 네가 묻느냐? 어찌하여 너는 내 말을 들은 자들을 불러내고 저희에게 묻지 않느냐? 보라, 바로 네가 이 가르침을 들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, 내가 말한 것을 온 **예루살렘**이 들었느니라.” 그러나 **안나스**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, 가까이 서 있던, 저택의 우두머리 집사가 손으로 **예수**의 얼굴에 따귀를 붙이고 말했다: “어찌 네가 감히 그런 말로 대사제에게 대꾸하느냐?” **안나스**는 그 집사를 꾸짖지 않았지만, **예수**는 그에게 말했다: “친구여, 내가 잘못된 말을 하였으면, 그 잘못에 대하여 증언하라. 그러나 내가 진실을 말하였으면,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?”

184:1.7 (1979.5) **안나스**는 집사(執事)가 **예수**를 때린 것이 유감스러웠어도, 너무 거만해서 그 문제를 거들떠볼 수 없었다. 혼란에 빠져 그는 다른 방으로 갔고, 거의 한 시간 동안 집안의 시종드는 사람과 성전 경비원들과 함께 **예수**를 버려두었다.

184:1.8 (1979.6) 그가 돌아왔을 때, 주의 옆으로 가서 말했다: “너는 **메시아**, **이스라엘**의 구원자라 주장하느냐?” **예수**가 말했다: “**안나스**여, 너는 나를 어릴 때부터 알았느니라. 내 **아버지**가 정하신 것을 제외하고 내가 누구라고 주장하지 않았고, 내가 모든 사람, **유대인**과 이방인에게 파송된 것을 네가 아느니라.” 그러자 **안나스**가 말했다: “네가 **메시아**라고 주장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. 그 말이

진실이냐?” **예수**는 **안나스**를 바라보았지만 이렇게만 대답하였다.
“네가 그리 말하였도다.”

184:1.9 (1980.1) 언제 **예수**가 **산헤드린**의 법정 앞에 끌려올 것인가
물으려고 사자들이 이때쯤 **가야바**의 저택으로부터 도착했고, 날이
밝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, **안나스**는 **예수**를 묶인 채로, 성전
경비원들이 호위하게 하여 **가야바**에게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
생각했다. 조금 있다가 그 자신이 그들의 뒤를 따라 갔다.

2. 안뜰에서 베드로가

184:2.1 (1980.2) 경비원과 군인의 일행이 **안나스**의 저택 입구에 다가가는
동안, **요한 세베대**는 **로마** 군인의 지휘관 옆에서 행진하고 있었다.
유다는 얼마큼 뒤떨어져 있었고, **시몬 베드로**는 멀찌감치 떨어져
따라갔다. **요한**이 **예수**와 경비원들과 함께 저택의 안뜰로 들어간 뒤에,
유다는 대문으로 다가왔지만, **예수**와 **요한**을 보고 나서, **가야바**의
집으로 계속 갔고, 거기서 주의 진짜 재판이 나중에 열릴 것을 알았다.
유다가 떠난 뒤에 곧 **시몬 베드로**가 도착했고, 대문 앞에 서 있었는데,
그들이 **예수**를 저택 안으로 막 데려가려고 할 바로 그때, **요한**이 그를
보았다. 대문을 지키던 여자 문지기는 **요한**을 알았고, **요한**이 그
여자에게 **베드로**를 들여보내라 요청하며 말을 붙였을 때, 그 여자는
즐겁게 찬성했다.

184:2.2 (1980.3) 안뜰에 들어서자, **베드로**는 석탄 불 있는 데로 가서 불을
쪼이려고 했는데, 밤이 으슬으슬 추웠기 때문이다. 그는 여기에 **예수**의
적들 사이에서 무척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고, 정말로 그는 그
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. 주가 **요한**에게 훈계한 것처럼 주는 그에게

가까이 있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. **베드로**는 다른 사도들에게 속했고, 그들은 주가 재판받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시간에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특별히 경고를 받았다.

184:2.3 (1980.4) 저택의 대문으로 다가오기 조금 전에 **베드로**는 긴 칼을 던져 버렸고 그래서 **안나스**의 안뜰에 무장하지 않은 채로 들어갔다. 그의 머리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고 그는 **예수**가 체포된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. 그 상황의 현실 — 여기 **안나스**의 안뜰에서 대사제의 하인들 옆에서 불을 쬐고 있는 것 — 을 깨달을 수 없었다. 다른 사도들이 무엇을 하는가 궁금했고, 머리 속에서 어떻게 **요한**이 그 저택에 들어갈 허가를 받게 되었는지 이리저리 뜯어보면서, **요한**이 문지기에게 그를 들여보내라고 청했으니까, **요한**이 하인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.

184:2.4 (1980.5) 여자 문지기가 **베드로**를 들여보낸 뒤에 조금 있다가, 그가 불 옆에서 몸을 따듯하게 하는 동안, 그 여자는 **베드로**에게 다가가서 짓궂게 말했다. “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?” 자, **베드로**는 이렇게 얼굴이 알려진 것에 놀라지 않았어야 하는데, 그 소녀에게 자기를 저택 대문을 통과시키라고 요청한 것은 **요한**이었기 때문이다. 그러나 너무나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어서, 이렇게 제자로 신분이 확인되자 그는 침착을 잃었고, 오로지 머리 속에서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으로 — 목숨을 가지고 달아날 생각으로 — “나는 아니라”고 말하여 하녀의 물음에 재빨리 대꾸했다.

184:2.5 (1980.6) 금방 또 다른 하인이 **베드로**에게 다가와서 물었다: “저희가 이 친구를 붙잡을 때, 동산에서 내가 너를 보지 않았느냐? 너도 그의 추종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?” **베드로**는 이제 속속들이 놀랐다. 이 고발하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달아날 길이 전혀 보이지

않았다. 그래서 **예수**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맹렬히 부인하며 말했다:
“나는 이 사람을 모르오. 추종자 중에 하나도 아니라.”

184:2.6 (1980.7) 이때쯤 대문을 지키는 여자 문지기가 **베드로**를 한쪽으로
끌고 가서 말했다: “네가 이 **예수**의 제자임이 확실하니라. 추종자들
중에 하나가 내게 너를 뜰 안으로 들여보내라 청했기 때문만이 아니라,
내 언니가 너를 이 사람과 함께 성전에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.
어찌하여 네가 이를 아니라 하느냐?” 그 하녀가 그를 고발하는 말을
들었을 때, **베드로**는 잔뜩 욕을 퍼붓고 맹세하며 **예수**를 도무지
모른다고 부인하며 다시 말했다: “나는 이 사람의 추종자가 아니라.
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, 전에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노라.”

184:2.7 (1981.1) **베드로**는 한동안 불 곁을 떠나서, 안뜰을 이리저리
거닐었다. 달아나고 싶었지만, 자기한테 눈을 끌까 두려웠다.
추워져서, 그는 불 곁으로 돌아갔는데, 그에게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
가운데 하나가 말했다: “분명히 너는 이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
하나이라. 이 **예수**는 **갈릴리** 사람이요, 네 사투리가 너를 드러내니,
네가 또한 **갈릴리**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이라.” 다시 **베드로**는 주와
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.

184:2.8 (1981.2) **베드로**는 너무 속이 뒤집혀서, 불에서 멀리 떨어져서 혼자
현관에 남아서 고발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려고 했다. 이렇게 혼자
떨어져 한 시간 넘게 지낸 뒤에, 그 문지기와 그 언니가 어찌다가 그를
만났고, 그들 둘이 다시 **베드로**가 **예수**의 추종자라고 놀리는 투로
비난했다. 다시 그는 그 고발을 부인했다. 그가 한 번 더 **예수**와 전혀
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을 때, 수탉이 울었고, **베드로**는 바로 그날 밤
일찍, 주가 그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생각났다.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에
짓눌려 거기 서 있는데, 저택의 문들이 열렸고, **가야바**의 집으로 가는
길에 경비원들이 **예수**를 이끌고 지나갔다. 주가 **베드로**를 지나는

동안에, 주는 햇불의 빛으로, 예전에 자신 있고 겉으로 용감한 사도의 얼굴에서 절망의 빛을 보았고, 돌이켜 **베드로**를 바라보았다. **베드로**는 살아 있는 한, 결코 그 얼굴빛을 잊지 못했다. 필사 인간이 주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, 언뜻 보는 눈길, 동정과 사랑이 한데 섞인 그런 눈길이었다.

184:2.9 (1981.3) **예수**와 경비원들이 저택의 대문 바깥으로 나간 뒤에, **베드로**는 그들을 따라갔지만, 조금만이었다. 더 멀리 갈 수 없었다.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슬피 울었다. 이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나서, 형 **안드레**를 찾기를 바라면서 캠프를 향하여 되돌아갔다. 캠프에 도착하고 나서 그는 겨우 **다윗 세베대**만 찾아냈는데, **다윗**은 **예루살렘**에서 그의 형이 숨은 곳으로 그를 안내하라고 사자 하나를 보냈다.

184:2.10 (1981.4) **베드로**의 체험은 전부 **올리브** 산에 있는 **안나스**의 저택 안뜰에서 일어났다. 그는 대사제 **가야바**의 저택으로 **예수**를 따라가지 않았다. 수탉이 우는 소리에 자기가 주를 거둬 부인했다는 것을 **베드로**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모두가 **예루살렘** 바깥에서 일어났음을 가리키는데, 도시의 성 안에서 새 종류를 기르는 것이 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다.

184:2.11 (1981.5) 수탉의 울음소리가 **베드로**를 제 정신이 들게 할 때까지, 몸을 따듯이 하려고 현관을 오르락내리락 거닐 때, 그는 다만 얼마나 영리하게 하인들의 비난을 피했는가, 그가 **예수**의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 망쳐 버렸는가 생각했다. 한동안, 그는 이 하인들이 이렇게 그를 심문할 아무런 도덕적 권한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고만 생각했고, 생각컨대 신분이 확인되고, 아마도

불잡히고 감옥에 들어갈 것을 피하는 데 얼마나 좋은 방법을 썼는가 정말로 자신을 칭찬했다. 수탉이 울 때까지, 자기가 주를 부인했다는 것이 **베드로**의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. **예수**가 그를 바라볼 때까지, 그는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그의 특권에 부끄럽지 않게 살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.

184:2.12 (1981.6) 타협하고 최소의 저항이 있는 길을 따라서 첫 걸음을 내디디었으니까, 이미 결정한 행동 과정을 계속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**베드로**에게 명백하지 않았다. 잘못 시작하고 나서, 돌이켜 바로잡는 것은 위대하고 고귀한 인격을 요구한다. 너무나 흔히, 사람의 머리는, 일단 발길을 들이고 나서, 그릇된 길을 계속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.

184:2.13 (1982.1) 부활이 있는 뒤에 그가 주를 만나고, 주를 부인하던 이 비참한 밤의 체험을 겪기 전과 똑같이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, **베드로**는 결코 그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완전히 믿지 않았다.

3. 산헤드린 회원의 법정 앞에서

184:3.1 (1982.2) 이 금요일 새벽 3시 반쯤에, 대사제 **가야바**가 **산헤드린**의 심문(審問) 법정이 개회되었다고 선언하고, 공식 재판을 받도록 **예수**를 그들 앞으로 데려오라고 요청했다. 세 차례에 걸쳐 이전에 **산헤드린**은 대다수의 투표로 **예수**의 사형을 선포한 적이 있으며, 율법을 어기고, 신성을 모독하고, **이스라엘**의 선조들의 전통을 모욕했다는 비공식 죄목으로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결정을 내렸다.

184:3.2 (1982.3) 이것은 정식으로 소집한 **산헤드린** 회의가 아니었고, 보통 장소, 즉 성전에, 깎은 돌로 지은 방에서 열리지 않았다. 이것은

산헤드린 의원 약 30명이 모여서 특별 재판을 하는 법정이었고 대사제의 저택에서 열렸다. **요한 세베대**는 이른바 이 재판을 통하여 내내, **예수**와 함께 자리에 있었다.

184:3.3 (1982.4) 이 주사제와 서기관과 **사두개인**들, 그리고 **바리새인**들 가운데 더러가 그 **예수**,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그들의 권한에 도전하는 자가 이제 안전히 손아귀에 있다고 얼마나 빠기었는지! 복수에 불타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그가 결코 살아서 달아나지 못하리라고 굳게 결심하였다.

184:3.4 (1982.5) 보통은, 사형(死刑) 죄목으로 사람을 재판할 때 **유대인**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진행했고, 증인 선택과 재판의 전체 운영에 온갖 공평한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. 그러나 이 경우에 **가야바**는 치우치지 않은 판사이기보다 검사(檢事)였다.

184:3.5 (1982.6) **예수**는 평상시의 옷을 입고 손이 뒤에 묶인 채로 이 법정 앞에 나타났다. 그의 위엄 있는 모습에 그 법정 전체가 놀라고 얼마큼 어리둥절했다. 그들은 그러한 죄인을 바라본 적도 없고, 목숨을 건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서 그렇게 침착한 태도를 구경한 적도 없었다.

184:3.6 (1982.7) **유대** 율법은 죄수에게 한 죄목을 씌울 수 있기 전에, 어떤 항목에도 적어도 증인 두 사람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. **유대** 율법이 배반자의 증언을 특별히 금했기 때문에, **유다**는 증인으로 쓰일 수 없었다. 스무 명이 넘는 거짓 증인들이 **예수**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었지만, 그들의 증언이 너무나 모순되고 너무나 명백히 날조(捏造)된 것이어서, **산헤드린** 의원들 자체가 그 연출을 무척 부끄러워했다. **예수**는 이 거짓 증인들을 인자하게 내려다보면서 거기 서 있었고, 바로 그의 얼굴빛이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찢절매게

하였다. 이 모든 허위 증언이 있는 동안 내내, 주는 입을 열지 않았고, 그들의 많은 거짓 고발에 조금도 대꾸하지 않았다.

184:3.7 (1982.8) 처음으로 그 증인들 가운데 어떤 두 사람이 의견의 일치와 비슷한 것이라도 가까이 간 것은, 한 성전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, “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부수고, 손을 쓰지 않고 지은 또 다른 성전을 사할 안에 세우겠다”고 **예수**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두 사람이 증언했을 때였다. 언급된 그 논평을 했을 때, 그가 자신의 몸을 가리켰다는 사실과 상관없이, 그것은 **예수**가 말씀하신 꼭 그대로가 아니었다.

184:3.8 (1982.9) “이 죄목들 가운데 어느 것에도 너는 대답이 없느냐?” 하고 대사제가 **예수**에게 소리를 질렀어도, **예수**는 입을 열지 않았다. 이 모든 거짓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에 그는 말없이 거기 서 있었다. 증오, 광신, 거리낌없는 과장(誇張)이 이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의 특징이었기 때문에, 그들의 증언은 그 자체에 얽혀서 실패했다. 그들의 거짓 고발에 대한 최선의 반박(反駁)은 주의 차분하고 품위 있는 침묵이었다.

184:3.9 (1983.1)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시작된 뒤에 얼마 있다가, **안나스**가 도착하고 **가야바** 옆자리에 앉았다. **안나스**는 이제 일어서서, 성전을 부순다고 하는 **예수**의 이 위협이 그에 대한 세 가지 죄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:

184:3.10 (1983.2) 1. 그는 민중을 비웃는 위험한 자이다. 민중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가르치고 달리 민중을 속였다.

184:3.11 (1983.3) 2. 신성한 성전에 폭력 쓰기를 주장했으니까, 그는 미친 개혁자이다, 아니면 어떻게 그가 성전을 부술 수 있는가?

184:3.12 (1983.4) 3. 그가 새 성전을 짓겠다, 그것도 손을 쓰지 않고

짓겠다고 약속했으니, 그는 마술을 가르쳤다.

184:3.13 (1983.5) **예수가 유대** 율법을 위반하여 죽어 마땅한 죄가 있다고 **산헤드린** 전체가 전에 찬성한 적이 있지만, 그들은 이제 그의 행위와 가르침에 관하여 **빌라도**가 그 죄인에게 사형 선고 내리는 것을 정당화할 죄목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. 그들은 **예수**를 합법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기 전에, **로마** 총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. **안나스**는 **예수가** 사람들 사이에 풀어놓기에는 위험한 선생으로 보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이 있었다.

184:3.14 (1983.6) 그러나 완전히 침착하게, 침묵을 깨뜨리지 않고 주가 거기서 있는 모습을 **가야바**는 이제 더 견딜 수 없었다. 그 죄수가 말하도록 유인할까 싶은 방법을 적어도 하나 안다고 그는 생각했다. 따라서, **예수**의 편으로 부리나케 가서, 주의 얼굴에 고발하는 손가락을 흔들면서 말했다: “내가 명하노니, 살아 계신 **하나님**의 이름으로, 네가 **구원자**인가, **하나님의 아들**인가 우리에게 이르라.” **예수**는 **가야바**에게 대답했다: “내가 그니라. 곧 나는 **아버지**께로 가고, 얼마 안 있어 **사람의 아들**은 권능을 받고서 하늘 무리들 위에 다시 한번 군림하리라.”

184:3.15 (1983.7) **예수가** 이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들었을 때, 대사제는 몹시 성이 났고 겹옷을 와락 찢으며 외쳤다: “우리가 증인이 어찌 더 필요하리요? 보라, 이제 너희는 모두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함을 들었도다. 너희는 법을 어기고 신성을 모독한 이자를 이제 어찌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?”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: “죽어 마땅하니라. 십자가에 달리게 하라.”

184:3.16 (1983.8) 자신 수여 임무에 관계된 한 가지 질문을 제외하고, **안나스**나 **산헤드린** 의원들 앞에 있을 때 **예수**는 무엇을 물어도 전혀

아랑곳하지 않았다. 그가 **하나님의 아들**인가 질문을 받았을 때, 그는 순간에 뚜렷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.

184:3.17 (1983.9) **안나스**는 그 재판이 더 진행되고, 나중에 **빌라도**에게 제출하기 위해서, **예수**와 **로마** 율법 및 **로마** 제도의 관계에 대하여 분명한 성질의 죄목을 작성하기를 바랐다. 의원들은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려고 초조했다. 이것은 그날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고 오후에는 아무런 세속의 일을 해서는 안 되었을 뿐 아니라, 또한 유월절 축하 기간에만 **빌라도**가 **예루살렘**에 있었으니까, 그가 **유대** 땅에서 **로마인**의 수도 **케자리아**로 언제라도 돌아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.

184:3.18 (1983.10) 그러나 **안나스**는 법정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. 아주 뜻하지 않게 **예수**가 **가야바**에게 대답한 뒤에, 대사제는 앞으로 걸어나와서 손으로 **예수**의 얼굴에 따귀를 올려붙였다. 법정의 다른 의원(議員)들이 그 방을 나가면서 **예수**의 얼굴에 침을 뱉고, 그들 가운데 여럿이 비웃으며 손바닥으로 **예수**를 찰싹 때리자, **안나스**는 참으로 소스라치게 놀랐다. 이렇게 무질서하게,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혼란 속에, **산헤드린** 의원들이 **예수**를 재판하는 이 첫 회의가 4시 반에 끝났다.

184:3.19 (1984.1) 편협하고 전통에 눈이 먼 거짓 판사 30명은, 거짓 증인들과 함께, 한 우주의 올바른 **창조자**를 주제넘게 재판하고 있다. 이 열렬한 고발자들은 이 **하나님**인 사람의 품위 있는 침묵과 지극한 태도에 분통이 터졌다. 그의 침묵은 견디기 두려웠고, 그의 말투는 두려움 없이 무시하는 태도였다. 그는 이들의 위협에 고떡하지 않았고 공격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. 사람이 **하나님**을 재판하지만, 그런 때에도 그는 이들을 사랑하고, 할 수 있으면 구원하려고 한다.

4. 굴욕의 시간

184:4.1 (1984.2) 사형(死刑) 선고로 내리는 문제가 있을 때 **유대인**의 율법은 법정에서 두 번 심의하기를 요구했다. 이 두 번째 회의는 첫째 회의 다음 날에 열려야 했고, 그 사이의 시간은 법정의 의원들이 금식하고 애도하면서 보내야 했다. 그러나 이 사람들은 **예수**가 죽어야 한다는 결정을 확인하려고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. 겨우 한 시간 기다렸다. 그동안에 **예수**는 성전 경비대의 보호 밑에서 접견실에 남아 있었고, 이들은 대사제의 하인들과 함께, 온갖 종류의 모욕을 **사람의 아들**에게 퍼부으면서 즐거워했다. 그들은 비웃고, 그에게 침 뱉고, 그를 모질게 쳤다. 막대기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, 다음에 “너 **구원자**여,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예언하라” 말하곤 했다. 이렇게 그들은 한 시간 꼭 채워 계속했고, 저항하지 않는 이 **갈릴리** 사람을 욕하고 학대하였다.

184:4.2 (1984.3) 무지하고 무딘 경비원과 하인들 앞에서 고통당하고 거짓 재판을 받던 이 비극의 시간에, **요한 세베대**는 인접한 방에서 혼자 공포 속에 기다렸다. 이 학대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, **예수**는 **요한**에게, 머리를 끄덕여 그에게 물러나라고 표시했다. 그의 사도가 이 모욕을 구경하라고 방에 남게 둔다면, **요한**의 분노가 너무 끓어올라서 저항하다가 의분(義憤)을 터뜨리면 아마도 죽음을 초래했으리라는 것을 주는 잘 알았다.

184:4.3 (1984.4) 이 끔찍한 시간을 통해서 내내, **예수**는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. 이 온 우주의 **하나님**과 인격 관계 속에 결합된 혼(魂), 인류 중에서 부드럽고 민감한 이 혼에게는 그가 들이킨 치욕의 잔(盞) 중에서 무지하고 잔인한 이 경비원과 하인들의 손에 맡겨진 이 끔찍한

시간보다 더 쓰라린 부분이 없었다. 이들은 이른바 이 **산헤드린** 법정의 의원들이 본보기를 보인 것에 자극을 받아서 그를 학대하였다.

184:4.4 (1984.5) 사랑하는 군주가 죄로 어두워진 구체, 불행한 **유란시아**에서 무지하고 잘못 인도된 사람들의 뜻에 복종하는 이 광경을 하늘의 지성 존재들이 구경하는 동안, 광대한 우주에 몸서리치는 의분이 휩쓴 것을 인간의 마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.

184:4.5 (1984.6) 사람이 영적으로 도달하거나 지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모욕하고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싶어 하도록 이끄는 특성, 사람 안에 있는 이 동물 같은 특성은 무엇인가? 반(半)개화된 사람에게 아직도 지혜와 영적 달성 면에서 우수한 사람에게 분통을 터뜨리려고 하는 나쁜 잔인성이 숨어 있다. 개화되었다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는 **사람의 아들**에게 이렇게 몸으로 공격해서 어떤 형태의 동물적 쾌락을 얻는 동안에, 그들의 못된 야비함과 짐승 같은 잔학성을 구경하라. 이 모욕과 비웃음과 주먹이 **예수**에게 쏟아지는 동안, 그는 방어하지 않았지만, 방어할 수 없는 자는 아니었다. **예수**는 지지 않았다. 단지 물질적 의미에서 다투지 않았을 뿐이다.

184:4.6 (1985.1) 이때는 방대하고 널리 퍼진 우주의 **창조자** · **지원자** · **구원자**로서 길고도 파란 많은 생애에서 주가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순간들이었다. **하나님**을 사람에게 드러내는 일생을 마음껏 살았으니까, **예수**는 이제, 새롭고 전례 없던 일, 사람을 **하나님**에게 드러내는 일에 들어간다. **예수**는 이제 사람의 인격이 고립되는 온갖 두려움을 최종으로 극복하는 것을 여러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. **사람의 아들**은 마침내 **하나님의 아들** 신분임을 깨달았다. **예수**는 그가 **아버지**와 하나임을 서슴지 않고 주장한다. 그 하늘같은 최고의 체험이 사실이요 진실인 것에 근거를 두고, 그와

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, 하늘나라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와 하나가 되라고 훈계한다. **예수**의 종교에서 실제 체험은 이처럼, 영적으로 고립되고 우주에서 외로운 이 땅의 필사자들이 인격의 고립, 그리고 아울러 모든 두려움의 결과 및 관련된 무력한 느낌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기법이 된다. 하늘나라의 형제인 현실 속에서 **하나님**의 믿는 아들들은 개인적으로, 또 행성 전체가, 자아의 고립을 최종으로 벗어나는 것을 발견한다. **하나님**을 아는 신자는 우주 규모에서 영적으로 친교하는 — 완전을 달성하는 신성한 운명을 영원히 실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늘에서 시민 자격을 얻는 — 환희와 장엄함을 더욱 맛본다.

5. 법정의 2차 회의

184:5.1 (1985.2) 5시 반에 법정은 다시 모였고, **예수**는 **요한**이 기다리고 있는 인접한 방으로 끌려갔다. 여기서 **로마** 군인과 성전 경비원들은 **예수**를 감시했고, 한편 법정은 **빌라도**에게 제시할 죄목들을 작성하기 시작했다. **안나스**는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은 **빌라도**에게 아무 중요성이 없으리라고 동료들에게 분명히 말했다. **유다**는 법정의 이 2차 회의 동안에 자리에 있었지만,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았다.

184:5.2 (1985.3) 법정의 이 회의는 겨우 반시간 걸렸고, **빌라도** 앞으로 가려고 폐회했을 때, 그들은 **예수**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기소장(起訴狀)을 세 항목 아래 작성했다:

184:5.3 (1985.4) 1. 그는 **유대** 민족을 타락시키는 자였다. 민중을 속이고 반란을 선동했다.

184:5.4 (1985.5) 2. **케자**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.

184:5.5 (1985.6) 3. 새 종류 나라의 임금이요 창시자라 주장함으로, 황제에 대항하여 반역을 선동했다.

184:5.6 (1985.7) 이 과정 전부가 변칙이었고 전적으로 **유대** 율법에 어긋났다. 성전을 부수고 다시 사흘 안에 세운다는 **예수**의 진술에 관하여 증언한 사람들을 제외하고, 어떤 문제에도 두 증인이 찬성한 적이 없었다. 그리고 그 점에 관해서도, 아무 증인도 피고(被告)를 변호하지 않았고, **예수**는 그가 무슨 의도로 말했는가 설명하라고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.

184:5.7 (1985.8) 법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그를 재판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항목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목이었고,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증언에 달렸을 것이다. 신성 모독죄에 관해서도, 그들은 사형 선고를 하려고 정식(正式)으로 투표하지 않았다.

184:5.8 (1985.9) **빌라도** 앞으로 가져가려고, 그들은 이제 주제넘게 세 가지 죄목을 작성했고, 이에 대하여 아무 증언도 청취하지 않았으며, 고발당한 죄인이 자리에 없는 가운데 합의를 보았다. 이런 일이 벌어지자, **바리새인** 세 사람이 자리를 떠났다. 그들은 **예수**가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, 증인 없이, 그가 자리에 없는 가운데 그에게 불리한 죄목을 작성하려 하지 않았다.

184:5.9 (1986.1) **예수**는 **산헤드린**의 법정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. 죄 없는 생애를 심판하는 동안에 그들은 **예수**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. **예수**는 **빌라도**가 낭독하는 것을 들을 때까지, 그들이 내놓은 공식 죄목을 (사람으로서) 알지 못했다.

184:5.10 (1986.2) **예수가 요한과 경비원들과 함께 방에 있는 동안, 그리고 법정이 2차 회의에 들어간 동안, 대사제의 저택 근처에 있던 어떤 여인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, 이상한 죄인을 보러 왔고,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물었다: “네가 **메시아, 하나님의 아들이냐?**” 예수는 대답했다: “내가 너에게 일러도,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겠고 내가 물어도 네가 대답하지 않으리라.”**

184:5.11 (1986.3) 그날 아침 6시에 **예수는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 앞에 나타나도록 옮겨졌고, 이것은 이 산헤드린 법정이 아주 부당하게 변칙으로 선포한 사형 선고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.**